

사회공헌
1위
은행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100% 국내자본은행 / 3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더 큰 금융의 힘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돈돈한 기업금융 파트너

금융교실 선생님

스마트금융 리더

행복Life은퇴설계사



NH농협은행 광고모델 류현진

NH농협금융

NH농협카드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NH저축은행

Bifan

2015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7.16
NO.1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1

김영빈 집행위원장,
강성규·유지선 프로그래머 인터뷰

개막작 <문워커스> 프리뷰·개막식 준비 화보

시네마

하이엔텍은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후원합니다

HiEntech

LG affiliated company

하이엔텍은 환경시설 관리, 엔지니어링분야에
전문기술을 갖춘
국내 3대 환경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하이엔텍은 설계, 시공, 운영의 각 분야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는 물론,
인류환경에 공헌하는 신기술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Division

<p>환경 기초시설 운영 분야</p> 	<p>하수관거 운영 분야</p> 	<p>자외선 소독/설비 분야</p> 	<p>환경 기초시설 종합시운전 분야</p> 	<p>수처리 분야</p> 	<p>기술개발 분야</p> 	<p>IT제어 분야</p> 
--	---	---	---	---	--	--

History

1999.10	법인 설립(주식회사 "맑은물지킴이")
2000.03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등록번호:성북-00-13-01)
2000.06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등록 (등록번호:제708호)
2003.12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10.04	주식회사 "대우엔텍" 사명변경
2011.11	(주)LG전자 자회사 편입
2011.11	주식회사 "하이엔텍" 사명 변경
2013.03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 (등록번호:제1-6호)

하이엔텍

LG affiliated company

[420-806]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번지 대우테크노파크 B동 1105호 TEL : 032-680-0500 FAX : 032-680-0599 www.hi-entech.com



각도에 따라 4가지 컬러로 보이는 카드 플레이트



내 멋대로, 내 맘대로
KB국민 **청춘대로카드**

홀릭's Choice 서비스

(전월 실적 30만원/60만원 이상 시 제공)

- 쇼핑홀릭**: 인터넷쇼핑/소셜커머스 10% 청구할인, 해외이용 5% 캐시백
- 푸드홀릭**: 음식업종 5% 청구할인

홀릭's Basic 서비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제공)

- 커피홀릭**: 커피/제과 5~10% 청구할인
- 데이홀릭**: 대중교통, 택시 10% 청구할인
- 편홀릭**: 영화(맥스무비), 주요 놀이공원 현장할인
- 스타일홀릭**: 뷰티 업종 5% 청구할인, 올리브영 10% 청구할인
- 모바일홀릭**: 3대 영역 앱카드(Kmotion) 결제시 5% 청구할인
- 리워드홀릭**: 연간 7백만원 이용시 리워드(포인트리) 1만점 제공

연체료율 연 22.9%~29.3%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 연회비는 K-World 1만 5천원, Master 2만원입니다.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는 상품별 서비스 제공조건(할인제외대상 등)이 존재하며,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85호 (2015.5.19 기준)

04 must BiFan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모저모

06 preview

〈문위커스〉

07 special

부천을 찾는 국내외 게스트는 누구?

08 cover story

BiFan 가이 권을
BiFan 레이디 오연서

10 people

강성규 프로그래머
유지선 프로그래머

11 interview

김영빈 집행위원장

12 BiFan diary

14 BiFan scope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1 풍경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정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해지 이예지
객원기자 문동령
사진 최성열 박종덕
편집 이다혜
디자인 김은 모보형
제작 이준웅
인쇄 (주)성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1101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구독문의
1566-9595

must BiFan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씨네21 박종덕



문채원

이민호



문채원 박종덕

02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하다

7월16일 목요일,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한다. 부천체육관에서 오후 7시부터 배우 신현준과 이다희의 사회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프로듀서스 초이스, 판타스틱 어워드를 비롯한 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이 진행된다. 8시부터는 최초로 달 칙룩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개막작 〈문위커스〉를 상영할 예정. 영화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11일간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01 레드카펫의 스타

개막식에 앞서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레드카펫 행사에 영화계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프로듀서스 초이스' 수상자 이민호, 문채원, '판타지아 어워드' 수상자 정우, 김고은, '잇 스타 어워드' 수상자 오달수가 부천을 찾는다. BiFan 레이디&가이인 오연서&권을, 경쟁부문 '부천 초이스'의 심사위원 이정현, 김태균, 올해 회고전의 주인공 임달화가 개막을 축하한다. 그 외에도 배우 송일국, 조재현, 친구, 박상민, 오지호, 조한선, 정경호, 홍중현 등이 참석한다.



〈세계의 끝과 원더랜드〉

03

〈올해도〉 거나한 차림상

부천국제영화제에는 어김없이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즐길 거리도 제각각. 부천 도심에서 즐기는 영화캠핑 ‘우중영화산책’, 3D영화와 멕시코 판타지 영화를 두고 나누는 대담 ‘메가토크’, 인디밴드 혁오(사진)와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작은 콘서트를 갖는 ‘원더랜드 인 Bifan’, 부천시청에서 펼쳐지는 레드카펫 행사 ‘갈라 나이트’ 등 스크린 앞에서만 기쁨을 찾기에 부천국제영화제의 품은 아주 넓다. 티켓 카탈로그와 영화제 홈페이지를 더 큰 눈으로 살펴보자.

04

주의, 매진 경보!

올해 Bifan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영화가 있다면 예매 현황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다. 온라인 예매가 지난 6월30일을 기해 시작된 이후, 영화제의 막이 미처 오르기도 전에 개막작 〈문위커스〉를 비롯한 100여 번의 상영(7월14일 오후 5시 기준)이 매진되었다. 매진작의 경우, 해당 영화가 상영되는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05

Bifan을 하얗게 불태우자

개막식이 끝이 아니다. 부천시청 잔디광장 옆 도로에서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애프터 파티 ‘Bifan 올나잇!’이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로, 게스트와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관객 모두에게 오픈된다. 마리끌레르영화제 오동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재즈 보컬리스트 여진의 보사노바 공연도 함께 하니 놓치지 말 것.

Bifan 2015 Festival map



06 한여름 영화제의 낙

셔틀버스는 영화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0~2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노선(사진)은 한국민화박물관에서 출발해 고려호텔, CGV소풍, CGV부천, 부천시청, 롯데시네마 부천, 경기예고, 비스테이 부천 호텔, 테마파크 호텔까지, 하루 4~5회 운행을 쉬는 시간대가 있고, 폐막식 이후엔 제한된 노선으로 운영된다.



07 집행위원장이 반한 영화

김영빈 집행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는 라울 가르시아 감독의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사진)이다.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소설 다섯 편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이다. 첫눈에 반해 개막작으로 선택할까 고민했을 정도라니 그 완성도와 재미를 믿어 봐도 좋지 않을까.



문워커스

Moonwalkers

양투완 바르두-자퀘트 | 프랑스 | 2015년 | 107분 | 개막작

이런 관객에게 권한다

몽상가들을 위하여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을 가장 잘 영화화 할 것 같은 감독을 뽑는다면? 아마 오늘날의 당신이라면 <스타워즈> 시리즈의 조지 루카스나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혹은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의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주저 없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스탠리 큐브릭이라 대답하지 않을까. 영화 <문워커스>는 바로 이렇게 즐거운 '영화적' 상상력에서 시작한다. 60년대 말 패션과 히피문화의 중심지 런던을 배경으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의 연출을 맡기기 위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찾아 영국으로 급파된 CIA요원 키드만(론 펄먼), 인생 대역전을 꿈꾸며 이에 합류한 3류 밴드의 매니저 조니(루퍼트 그린트), 그리고 열떨결에 스탠리 큐브릭이 되어버린 단짝친구 레온(로버트 시한)이 의기투합해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이는 영화 <문워커스>는 과거를 배경으로 오늘날 젊은 이들의 꿈을 그리고 있는 영화다. 유능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키드만, 성공을 꿈꾸며 달려가고 싶어하지만 현실에 발이 묶여

괴로워하는 조니, 그리고 아무런 목표나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레온. 이들은 다름아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며, 이들의 고군분투는 바로 우리들이 보내는 전투적인 현실이고, 언제까지나 주변인으로서 머물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절규이기도 하다.

하지만 침울해 하지는 말자. 화려한 꽃무늬 셔츠, 찰랑거리는 판탈롱 바지의 모즈룩으로 돌아온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론 위즐리로 출연했던 루퍼트 그린트와 <헬보이> 등의 '야수 전문 배우' 이미지에서 발랄한 패션아이콘으로 변신한 론 펄만이 보여주는 60년대 말 런던 히피 패션,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록음악과 몽환적으로 질주하는 영상은 당시 히피들이 꿈꾸던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결국 그 시절 히피들이 꿈꾸던 사랑과 평화, 자유와 화합의 세상은 끝내 오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들의 계획은 아폴로 달 착륙 계획만큼이나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호 프로그래머

씨네칸 오가닉



김고은

씨네칸 오가닉



임달하



곽현화

씨네칸 스포츠



쇼노 시은

씨네칸

환상적인 영화, 환상적인 손님

부천을 찾는 게스트...쇼노 시은 감독,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 등

2015년 부천국제영화제의 맞이 높이 올랐다. 한해 중 태양이 가장 뜨겁고 비가 잦을 때에 시작하는 영화제는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았다. 아시아 최고 장르 영화제답게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별별 영화들은 물론, 그 작품들에 힘을 쏟은 감독과 배우도 부천을 방문해 팬들에게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게스트의 이름들 중 먼저 눈에 띄는 건 아시아의 영화인들이다. 이번 회고전 '훌륭한 배우 좋은 사람'의 주인공인 배우 임달하는 17, 18일 이틀간 두기봉 감독의 <PTU>(2003)와 <흑사회>(2005), 최신작 <총봉차>(2015) 등 무려 다섯 편의 상영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필모그래피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특별전을 갖는 쇼노 시은 감독은 최신작 <리얼 솔라집기>(2015)와 함께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데뷔 이래 쉽 없이 파격을 추구해온 감독의 에너지를 가까이서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다.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2013)로 2년 전 부천국제영화제 넷팩상을 수상한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도 신작 <종이달>(2015)을 선보이며 영화제와의 연을 이어간다. 재작년엔 '부천에서 발견한 감독'이었지만 오늘날 일본의 엄연한 거장이 된 그를 맞이할 마니아들의

성원으로 <종이달> 상영은 전회 매진된 상태다.

국내 영화들의 GV 자리에서는 보다 익숙한 얼굴들이 객석 앞에 선다. 18일 아침 <차이나타운>(2015) 상영 후엔 감독 한준희, 배우 김고은, 엄태구, 고경표가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같은 날 다음 회차엔 '코리안 인디 장르' 섹션에서 상영하는 <아티스트 봉만대>(2013)를 두고 봉만대 감독과 배우 곽현화, 여현수가 영화만큼이나 솔직한 입담을 늘어놓는다. 개봉을 앞둔 작품들이 부천국제영화제를 통해 일찌감치 관객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영화인들의 발걸음은 이어진다. 배우 홍수아와 임성언의 새로운 모습이 돋보이는 <멜리스>(2015), 가수 다나의 스크린 데뷔작 <선사인>(2015), 정경호와 후지이 미나가 호흡을 맞춘 <그리울 런>(2015), 제목부터 과격의 기운이 진동하는 <시발, 놈: 인류의 시작>(2015) 등 많은 개봉예정작의 참여진이 발빠른 손님을 부지런히 마주할 예정이다.

문동명

cover story

“판타지 장르의 열정적인 팬”이라는 배우 오연서는 BiFan 레이디에 선정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다. 드라마 <왔다 장보리>(2014),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 등 가족드라마에서 밝은 역할로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녀. 도시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역할들을 선택했다고 한다. 실제로 도도한 인상의 외모와는 달리, 집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챙겨보는 게 취미이며 친구들에게 ‘오타쿠’라는 타박을 듣는다고, “<스타트랙> 시리즈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014) 등 SF영화에 열광한다. 지브리 스튜디오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피스>같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일드 <갈릴레오> 시리즈 같은 추리물의 팬이기도 하다”는 그녀. 오연서에게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그야말로 영화의 축제다. “독특하고 다양한 소재가 많아 좋다. 소노 시온 감독 특별전은 꼭 챙겨볼 예정이다. 함께 활동하는 홍보대사 권율이 출연한 <자각몽>도 <인셉션>같은 류의 SF 장르라 기대된다.” 이어 오연서는 “한국에서도 장르물이 잘 정착되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외계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웃음)”며, 장르에 대한 애정을 밝힌다. “우중영화산책이라는 색다른 캠핑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시라”는 말도 잊지 않은 오연서는 홍보에 앞서 무엇보다 관객들과 함께 이 축제를 만끽할 예정.

글 이예지 · 사진 백중현

우중영화산책에 함께 하세요~

BiFan 레이디 오연서



배우 권율은 “영화를 마음껏 볼 거다. 영화도 많이 보면 홍보대사의 본분에도 충실한 셈이니 일석이조 아니냐”며 개막에 앞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BiFan 가이에 선정된 권율은 <명량>(2014)의 이순신의 아들 이희에 이어 최근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의 두 얼굴의 공무원 이상우까지 다양한 역할을 선보였다. 그는 영화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시네필이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서 일상에서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따라하려 하곤 했다. 홍콩영화를 보고나면 성냥개비를 물고, 에드워드 펠롱처럼 머리를 잘랐다가 두발단속에 걸려 잘리기도 하고 <웃음> 영화를 사랑하는 권율에게 이번 홍보대사에 선정된 것은 “다양한 국가, 장르의 판타스틱한 영화들이 가득해 놀이동산에 초대된 듯한 설레는 기분”이다. 그가 챙겨볼 영화는 스웨덴판 <오션스 일레븐>(2001) 같은 영화라는 <마스터 플랜>과 마이클 패스빈더가 출연하는 <슬로우 웨스트>, 음식영화 <타볼라의 식당>이다. 직접 출연한 KAFA 3D 프로젝트 옴니버스 영화 <자각몽>도 빼놓지 않는다. 처음 도전하는 SF액션 장르에서의 연기인데 CG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을지 무척 기대된다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장르영화로 더위를 푸시길! 젊은 친구들은 클럽에서 노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장터에 오신 것처럼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글 이예지 · 사진 백중현

장르영화로 더위를푸시길

BiFan 가이 권율





장르의 참맛을 보시라!

강성규 수석프로그래머

“아시아 지역의 장르영화 쇼케이스로 자리잡고 싶다.” 올해 처음 영화제 프로그래밍에 도전한 강성규 수석프로그래머의 야심이 대단하다. 강 프로그래머는 2000년 초 부산프로모션플랜(PPP) 운영위원으로 일하며 프로젝트의 투자 과정에 참여했고, 이후엔 해외를 돌며 프로젝트 제작에 힘썼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위촉된 건 1990년대 홈비디오 시절에 장르영화 수입업에 몸담았던 경력 덕이다. 그가 올해 부천에서 마주한 최대 속제는 “장르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IPTV나 인터넷 VOD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장르영화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영화제 상영작으로 선별하기에 아카데미하지 않은 작품이 많아지기도 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화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대안으로서 올해는 국내 관객들이 선호하는 드라마 장르를 강화했다. 월드 프리미어가 늘고, 지역적으로도 고루 안배하려 애썼다고. 강 프로그래머는 “극장에서 장르영화를 보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라며, 올해는 “공습경보: 코리안 인디 장르! 섹션에서 장르영화의 참맛을 제대로 맛보라”고 조언했다.

글 윤혜지 · 사진 최성열



전화위복이랄까요?

유지선 프로그래머

명실공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안주인인 유지선 프로그래머는 올해로 12년째 부천에서 일하고 있다. 문화계 언저리에 머물고 싶다고 막연히 꿈꿨던 12년 전, 그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 부천영화제 자막팀 오퍼레이터로 일하게 됐다. “스크리닝 매니저를 지원했는데 일 문학을 전공한 덕에 자막팀에 배치됐다. 그 때를 계기로 영화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된지 4년째다.” 싱송생송했던 올해, 과연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단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 지원 삭감 때문에 한창 시끌시끌하다 메르스 사태까지 정통으로 맞아 영화제를 제대로 열 수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게스트 초청도 우르르 취소됐다. 그래도 전화위복이랄까. 관객이 게스트대신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해주더라.” 그 덕에 상영작 예매율도 지난해보다 높았고, 인기작인 <종이 달>은 2회 상영이 전부 빠른 속도로 매진됐다. “방향을 약속한 몇몇 게스트의 초청이 좌절돼 아쉽다”고 유 프로그래머는 근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노 시온, 임달화, 요시다 다이하치, 히로키 류이치, 기타무라 가즈키 등 여전히 관객을 설레게 만드는 게스트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레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글 윤혜지 · 사진 최성열



BiFan 특유의 다양함을 누리시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영빈 집행위원장

김영빈 집행위원장은 2010년부터 5년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을 이끌고 있다. 아무 것도 몰랐지만 영화에 대한 열정과 영화제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 온 5년이였다. 어느덧 20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는 내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매해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의 마음가짐, 초심을 매일 되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벌써 5년, 아직 5년이다.

메르스 여파로 영화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무사히 개막해 다행스럽다. 경과를 보면서 결정하느라 7월8일에야 세부적인 사항들이 최종 결정됐다. 개폐막식 장소가 늦게 결정되어 실무진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말고는 큰 문제였다. 지금은 영화제를 잘 치러내야겠다는 목표에 다들 매진 중이다. 부담은 우리 몫이니 관객들은 그저 즐거주시길 기대한다.

2010년에 집행위원장을 맡아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할 일이 주어진다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 모르면 용감해진다든 마음으로 덤벼들었던 것 같다. 영화제의 의미에 대해 고민 해온 5년이다. 아시다시피 중간에 부침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한 해 한 해 마무리 할 때 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낀다.

처음에 맡았을 때의 구상이나 방향과 비교했을 때 19회를 맞은 BiFan의 현재는 어떤지.

지난 5년을 평가하자면 안정화의 시기였다. 해외영화제와의 관계를 다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해외영화계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프리미어 영화가 최대 편수라는 게 증거다. 생산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가는 영화제로 거듭나려 한다.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제 내년이 20회다. 앞으로 BiFan의 비전이 궁금하다.

20살이면 청년기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꾸준히 제 역할을 해온 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네트워크(NAFF)와 이를 지원,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마켓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진 않겠지만 이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지금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 정도지만 영화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마켓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용관도 마련하고 싶다. 영화제만의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일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묶어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을 잊지 않는 거다. 현재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박하게나마 영화 창작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화아카데미를 운영 중이고 올해 8월부터는 시민아카데미도 시작하려 한다.

올해 BiFan을 찾아올 관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의 키워드는 '장르영화 프리미어 쇼케이스'다. 역대 최다인 64편의 월드 프리미어를 소개할 예정이다. 흔히 부천이 접근성은 좋은데 관객도 쉽게 빠져나가는 '체류형 영화제'라고 하는데 올해는 'BiFan 올나이트' 같은 행사도 충실히 준비했다. 어쨌건 핵심은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BiFan의 강점은 취향에 호소하는 다양함이다. 관객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매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글 송경원 · 사진 최성열

In the Mood for BiFan

This year, BiFan is arriving just in time. Korea desperately needs a party. Over the past two months, the phantom menace of MERS has infected relatively few patients but has closed down schools, cancelled festivals, shut people up in their homes and scared away all the tourists. The streets have been weirdly quiet, and it's never been so easy to get a seat on the subway. Now, with MERS fading into irrelevance, it's time to come out onto the streets and enjoy life a little. It's time to BiFan. The audience looks ready. Tickets for the opening night screening of comedy *Moonwalkers*, starring Ron Perlman as a CIA agent sent to convince Stanley Kubrick to fake the Apollo 11 moon landing, sold out in only 8 seconds. As of two days ago, online tickets to over 100 screenings in the main program were already fully booked, leaving only same-day, on-site ticket sales available. The theaters are going to be packed at this year's festival.

BiFan's 19th birthday is a milestone of sorts, as the festival bids farewell to the slightly irreverent 'P' that used to grace its name (requiring journalists to insert explanatory parenthetical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uchon' and 'Bucheon'). With PiFan now relegated to history, BiFan is looking ahead to the future, and is projecting an air of confidence.

What to see at this year's festival? With 235 films in total, there is plenty to choose from. Special sections range from Mexican genre cinema, *Sono Sion*, and *Simon Yam*, to Korean independent genre cinema, classic science fiction, and 3D films by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The Masters section contains an intriguing mix of films by the likes of *Miike Takashi*, *Kevin Smith*, *Fukasaku Kinji*, *Oshii Mamoru*, *Jeon Kyu Hwan* and *Jean-Jacques Annaud*. There are no less than 18 collections of shorts containing work by up-and-coming filmmakers and established voices alike. And as usual, the 'Bucheon Choice' feature film competition section displays a wide diversity



Moonwalkers

of genres and styles, which will provide a challenge for this year's jury, which includes Korean actress/singer *Lee Jung-hyun* (*Juvenile Offender*), Swiss director *Alexandre O. Philippe* (*The People vs. George Lucas*), Mexican producer *Pablo Guisa Koestinger* (*Here Comes the Devil*), Korean director *Kim Tae Kyun* (*Volcano High*), and Australian film critic *Richard Kuipers*.

The mood will become more businesslike starting on Monday, when NAFF (th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kicks off its eighth edition. The industry event will host a project market where directors and producers preparing genre films can pitch their work to potential partners and investors, and a special focus on China which will highlight the development of genre cinema in that dynamic industry. Several films in the main program, including Taiwanese director *Chung Lee's* *The Laundryman*, were previously showcased at NAFF.

Finally, the closing ceremony on July 24 offers up a highly anticipated world premiere in Korean horror film *The Chosen: Forbidden Cave*. The talent shown by director *Kim Hui* in his feature debut *The Neighbors*, as well as the new film's plot, which incorporates elements of shamanism and exorcism, has left many viewers anticipating that this may be one of the highlights of BiFan.

Throughout the coming nine days, we on the dailies team will be bringing you festival coverage, reviews, interviews, comments, and perhaps the occasional rant as we sample and celebrate all that the festival has to offer. Stay tuned, and Happy BiFan!

Darcy Paquet

Love, Fantasy, Adventure and Fantastic Film Festivals

The beautiful animated trailer for BiFan2015 takes us from a wintry woodland hike to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streets to a bus commute through Bucheon that is crowded with fantastical creatures. Before returning to the quiet of the snow-covered mountain setting, we rush through surreal images of everyday life, culminating in a strangely pleasurable, yet apocalyptic tour through the landscapes of today's global fantastic cinemas.

But what is “fantastic” about fantastic film festivals?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re and the fantastic? Between film and the fantastic? Well, we might think about the early pioneer of filmic magic, George Melies, to try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xpansion of genre films beyond the non-realist modes of fantasy, SF, horror, or animation. For Melies, the film experience in itself always offered a way of entering new worlds. In this sense, we might think about how and why Fantastic Film Festivals are growing in number, influence, and popularity. BiFan is an important node in a global network of genre film festivals. To highlight BiFan's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genre film festivals, the European Fantastic Film Festivals Federation (EFFFF) grants a special Asian Award at Bucheon that points to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Asian cinema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global genre cinemas.

Genre festivals unite filmmakers and audiences around the world, and create a shared repertoire of fantastic scenarios that can help reinforce global connections. The large network of fantastic film festivals across Europe, Asia, and the Americas testifies to the fact that genre films create structures of feeling that resonate with audiences across every continent, from the exhilarating terror of zombie apocalypse to the fierce bonds of brotherhood in gangster noir. Not only are genre film festivals proliferating, but we can see the importance of genre cinemas in maj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like Busan, Cannes, Berlin, and Venice too, which are programming more genre films, even if they still highlight art and realist films.

BiFan is an important hub for this convergence of genre cinemas and global film culture at large. The festival has long showcased science fiction, fantasy, horror, animation, and action cinemas, and now aims to include the lighter genres of comedy and romance,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what fantastic films can be and what makes for a fantastic film festival experience!

Michelle Cho

BiFan Buzz

As the opening of the 19th edition approaches, we ask: What films a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at this year's BiFan?

[“A pair of Japanese films really have me excited. Hasumi Eiichiro's Assassination Classroom looks to be a riotously entertaining high-school sci-fi thriller, blending top drawer FX with cartoonish violence. Meanwhile my adoration for oddball actress Ando Sakura has me desperate to see female boxing drama 100 Yen Love.](#)

James Marsh (Asian Editor, TwitchFilm.com / critic, Screen International)

[On the Korean front, I'm most excited about Super Origin, a comedy about the world's first caveman from director Baek Seung-gi, whose previous film Super Virgin was a wonderful surprise at BiFan in 2012. Looking beyond these shores, I'm most looking forward to the period gangster tale Bombay Velvet by Anurag Kashyap, one of the world's most exciting new genre voices.](#)

Pierce Conran (critic/journalist, Modern Korean Cinema / Time Out Seoul)

[I am so looking forward to watch the closing film, K-horror The Chosen: Forbidden Cave, and also Violator from the Phillipines, and Derek Kwok's Full Strike. And I want to re-watch Miike Takashi's Yakuza Apocalypse, which will probably be one of the wildest screenings in this fabulous BiFan.](#)

Mike Hostench (Deputy Director, Sitges Intl Fantastic Film Festival of Catalonia)

짜릿한 부천의 낮과 밤으로 오세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 D-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D-1, 한창 분주히 준비 중인
부천체육관을 찾았다. 개막식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현장을
들어다보자.



01



02 03



- 01 개막식이 열리는 부천체육관 앞.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메인컬러인 청색과 적색이 조화된 보랏빛 기둥들이 위풍당당하게 서있다.
- 02 오병건 부천 부시장이 개막식을 준비하는 영화제 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다. 부시장님 격려로 더욱 파이팅이 넘치는 현장.
- 03 “번쩍번쩍 빛나는 영화제!” 선글라스로도 가려지지 않는 김영빈 집행위원장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 04 그동안 영화제를 빛냈던 배우를 얼굴 아래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triple distilled twice as smooth

3배 더 순수하고, 2배 더 부드럽게, 제임슨



JAMESON



IRISH WHISKEY